

6/14/26

설교 제목: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심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2 장 22-37 절

예수와 바알세불(막 3:20-30; 눅 6:43-45; 11:14-23; 12:10)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마태는 이 사람의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을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리들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여지껏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혹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동안 그려왔던 메시아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 왕국을
재현시켜 줄 왕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적대적입니다.

그들은 혹여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할 것을 우려해 예수님의 이적 행위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은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던 바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정확히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 하십니다.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 사람을 사로 잡고 있는 자신의 부하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실 상 자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또 다른 이슈를 꺼내어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하십니다.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고 반문하십니다.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 곧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가리 킵니다.

그들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것을 놓고 예수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들은 너희들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한 것으로 인해 너희를 위선자요 죄인으로 선고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반론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았다면, 유독 예수만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의 귀신 축출 행위가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예수의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귀신 축출 행위를 사단에 힘입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행위가 성령을 힘입은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은 사단의 왕국이 괴멸되고 있음을 보인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 이미 이 땅에 실제적이고도 종말론적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종말이 실현되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미 사단을 결박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고, '세간'은 사단에게 사로 잡힌 자 즉 귀신들인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이미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존하여 악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 때까지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 결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을 결박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껏 사단이 마음대로 지배하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건져내셔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내,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도래된 메시아의 시대이고, 예수께서 사단의 소유물이 된 사람들을 하나씩 당신의 품으로 회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사단의 집이 약탈되는 중이며, 사단의 집이 다 털린 후에 모든 사람이 악의 세력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결박된 사단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서로 투쟁하는 와중에 중립적인 입장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예수님 당신로부터 사람들을 흠으려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죄와 비방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적을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고 한 바리새인들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것입니다.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거나 거스리는 것을,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부인하는 것, 곧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사역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는 사명을 맡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수락하게 하시며,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더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자라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따라서 비록 성부를 경원하고 성자를 미워할지라도,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인해 참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회와 중생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차단하는 자 곧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결국 심판에 회부될 수 밖에 없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종말론적인 범죄로써 영원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최고 그리고 최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귀신을 쫓아낸 당신의 열매가 선한 근본에서 나왔음에도 그 근본을 비방한 바리새인들을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나무와 실과에 비유해 비판하십니다.

33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본질과 외부로 표출된 현상이 동일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그의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된다고 하십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의지와 도덕의 총체적인 창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저들은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이제 열매 맺지 않은 자신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심판 날에 심판 주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각 사람을 그들의 한 말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의 기준이 선한 말을 하였느냐 악한 말을 하였느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우리는 놀라며 메시아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분의 사역을 왜곡하며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임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것을 부정할 경우 구원을 받을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왜곡하는 것은 인간이 짓는 죄 중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무가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말을 낳고, 악한 마음은 악한 말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립니다.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 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 시키실 것입니다.

말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